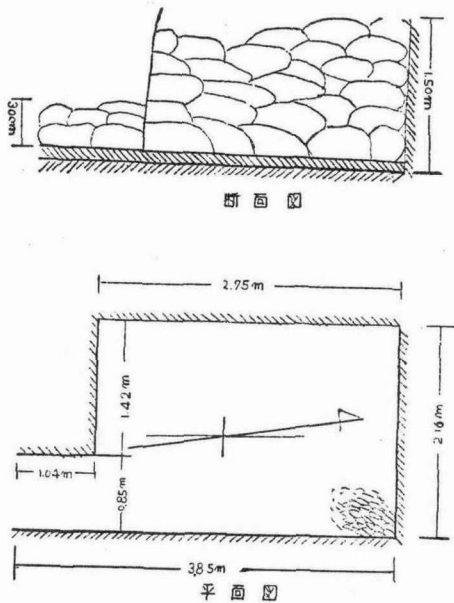


井은 이미 崩壞되었고 盜掘을 거친 古墳임이 確實하며 玄室內에는 粘土가 充滿되어 天井의 붕괴는 相當히 오래 時日이 經過됨을 알 수 있었다. 遺物의 配置狀態는 完全한 位置를 確定키는 어려우나 人夫陳述에 依하면 土器가 있던 곳은 屍體安置部分의 西쪽 옆으로 推定되며 耳飾은 屍體의 頭部에 該當되고 純金製裝飾具는 胸部近處로 推定되기 때문에 服飾品의 一種으로 推定되며 馬具 其他 木棺飾金具等은 그 周圍에서 出土된 듯하다. 玄室바닥을 全面에 自然板石을 不規則하게 깨뜨리어 魚鱗狀으로 가랐던 것을 알 수 있고 羨道の 蓋石과 玄室天井은 完全除去되어 原形을 찾을 수 없으며 穹窿天井의 構築狀態가 玄室北壁에 若干 殘存하고 있다.

三、出土遺物の 種類와 數量

(1) 銅心金被素環耳飾 壹雙 徑 一一 cm

(2) 純金製竹葉形裝飾具 八枚 純金을 薄片으로 두드려 늘여서 竹葉形으로 만들고 周邊에는 날카로운 金屬道具로서 늘려서 인출기의 模樣을 나타내었으며 葉根에는 바늘이 들어갈만한 고리를 만들어 실로 꿰어서 衣服等에 附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八枚가 똑같은 樣式이나 크기는 若干씩의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平均 大를 보면 長이 七 cm 幅이 一·八 cm 이다.



(3) 土器 丸底灰色土器 壺로서 全體에 繩帶紋의 表現되어 있고 高一八·五 cm 口徑 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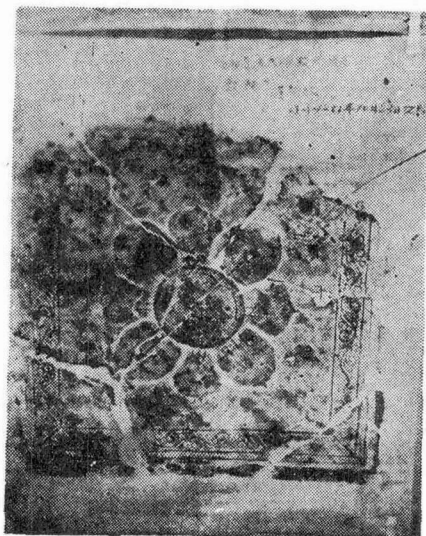
八 cm 胴徑 一七·八 cm 이다. (4) 鐵製裝飾具 木棺에 쓰여진 釘과 棺마구리 裝飾具 馬具等인데 馬具는 鐵製轡等이다.

青陽 長谷寺 上大雄殿의 方博

李 殷 昌

青陽郡 大峙里 長谷里 七甲山 長谷寺에는 國寶二七二號 上大雄殿이 있으니 오랜 歲月이 흐르는 동안 累次의 補修를 거쳐 建立當初의 모습인 많이 바뀌어졌으나 아직도 麗代의 遺制를 볼 수 있고 床面에는 梵髻가 깔려 있다. 이는 法堂建築當時에 깔았던 것으로 至今까지 傳해오는 것이니 이것이 이에 紹介하고자 하는 高麗^①有紋方博이다.

有紋方博은 灰黑色을 하였고 그 크기는 縱橫이 二三·五 cm 로 正方形을 이룬 方博이며 그 厚 六 cm 이다. 博面 中央에 아름다운 八葉蓮花紋이 있는데 蓮瓣마다 川字型 線條가 陽刻되고 子房部는 圓版內에 四葉蓮花紋으로 區劃하고 그 안에 數個의 蓮實子가 表示되었다. 博面 四周로는 모듬의 緣郭線으로 두르고 바깥쪽의 雙線과 안쪽의 單線안의 空間에 流麗한 唐草紋을 線刻하여 있다. 興王寺 西南建物 址出土 畫紋^② 釉博의 紋樣보다는 簡單한 것이지만 그 紋樣의 意匠에 있어서는



兩者相通되어麗代有紋方博의 代表가 될만하다.

이 有紋方博의 表面에는「上」字 表示를 하였으니 이는 敷設할 때 正廳의 位置를 明示한 것으로 縱橫相連하여 바닥 全面을 깔았다. 그리고 이에 添記해야 할 것이 있으니 곧 扶餘 窺岩面 外里寺址出土 方博③은 四隅角에 蓮瓣花紋(四等分花)이 있고 慶州 臨海殿址出土 方博④은 四隅角에 寶相華唐草紋(四等分花)이 있어 濟羅의 有紋方博은 相隣結合하여 完全한 十字型 蓮花紋을 또는 十字型 寶相華紋을 形成하는 匠意를 配慮한 데 對하여 高麗方博에 있어서는 四周 緣郭線 및 唐草紋으로 두르기만한 것이 特色인간다.

註

- ① 一九五八年十二月號「思潮」誌拙稿「寺跡踏查報告」
- ②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教學論文集 黃壽永氏論文 「高麗興王寺址의 調査」
- ③ 朝鮮古蹟研究會刊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六八面——七一面
- ④ 關野貞著「朝鮮의 建築と藝術」一〇二面「博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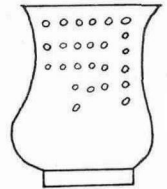
李朝初期의 文字刻白磁器와 三尊佛龕

黃 壽 永

(一)

一九五八年 六月에 日本 鎌倉市 近代美術館에서는「珍奇陶磁展」이 開催되었었다. 出品 一六六點中 韓國것은 一九點이었는데 그 중에서 筆者가 가장 注目한 것은 李朝初期로 推定된 白磁碗이었다. 크기는 一五·二cm×一七·五cm의 小品이며 下底에는 얇은 굽이 달리고 胴部는 볼르면서 넓은 口緣을 向하여 차차 좁아들었다. 胎土는 精白하고 形態는 端正하며 釉澤은 牙黃色인 바 그 表面에는 鐵砂로서 大字의 한글이 陰刻되어 六行으로 縱書되어 있었다. 說明文에「側面에 刻付된 朝鮮文字가 무엇이었을지는 解讀할 수 없으나 李朝世宗二十八年(一四四六) 天上의 愚

第三卷 第六號 通卷二十三號



이워라가니라
니거라어
제호아삼스
선반(도동)이
가(도동)이
마(도동)이
가(도동)이

민을 불상하여겨 諺文을 制定하였다고한다. 이 年代를 降下하기 그다지 멀지않은 時代에 新制의 文字가 珍奇하여 刻付한 것인지 또는 特別한 意味가 있는 것인지 興味가 깊다」하였고 傳來에 對하여서는「箱子 뚜껑裏面에 高麗白水指라 있고 延寶三年(一六七五) 對馬太守로부터 寄贈된 것이라고 記錄되어있다」고 하였다. 現所藏者는 謙倉市の 佐藤千壽氏라 하였는데 다음에 記錄하여 敎示를 얻고자하는 바이다.

(二)

日本 天理大學附屬參考館에는 日帝時(一九三〇年頃) 서울 文明堂商店에서 土佐敏一氏가 購入하였다는 木造佛龕 一座가 所藏되고 있다고 한다. 形態는 順天 松廣寺의 三尊佛龕(國寶二一七號)과 同一하다는 바 外部는 黑漆되었고 龕內에는 主尊 左右에 菩薩 各一軀가 安置되어있어 年代는 朝鮮初期로 推定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佛體內에 金剛經의 印本이 있어(現在 十四枚) 한글이 보이는 것은 다음과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筆者는 現品을 實見하지는 못하였는데 앞으로 所藏者에 의하여 이 佛龕과 藏置物이 發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註)

(註) 이資料는 故關野貞博士의 韓國關係調査카 드 중에서 筆寫한 것으로 閱覽을 承認하여준 東大關野克教授에게 感謝를 表하는 바이다.

月城郡 「부처재」의 石佛坐像

鄭 永 鎬

月城郡 陽北面 虎岩里 「도통골」(道通谷)의 「부처재」(註)에 石佛一軀가 遺存하여 지난 一月 同人 鄭明鎬氏와 함께 調査하였다. 祇林寺에서